

〔새〕〔로〕〔발〕〔견〕〔된〕〔古〕〔書〕 ⑥

甲 峴 雜 識

柳 永 博
〈서울大學校 文理大 教授〉

1. 입수(入手)

이번으로 여섯권의 새로 발견한古書를 해제(解題)하게 된다. 이 《甲峴雜識》은 李丙燾박사 장서에서 골라냈다. 박사님의 數萬卷에 달하는 古書本 가운데에는 아직도 손길이 미쳐 단지 아니한 古冊들이 얼마던지 쌓여있다. 박사님의 古書本장서는 그야말로 평생에 걸쳐 수집하여 놓으신 실로 귀중한 文獻들이라 하겠다. 필자는 그동안 자기 연구를 위해서 많은 장서가들의 古冊들을 열람하여 오는 터이지만, 박사님의 장서속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언제까지나 나올 줄을 모르고 책속에 묻혀 시간을 보낸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많고 또 많은 그 헤아릴 수 없는 數萬卷의 책들속에 압도되어 바깥 세상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박사님의 장서는 각종 각색의 책들이 한자리에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옛것이라하면 무엇이던 한 자리에 앉아 모두를 탐일 수가 있을 정도이다. 그것들이 비단 국내(國內)의 고서에 머물지 않고 중국, 일본, 멀리는 인도, 더 나가서 서양의 여러 나라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다 할 그러한 풍부한 장서를 갖추고 계시다. 또 한가지는 이 많은 古書들이 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너무나 많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다.

이 《甲峴雜識》은 그 가운데에서 그저 손길 닿는대로 들쳐 본 것이며 물론 아직 未公開의 것이므로 이번에는 이 《甲峴雜識》에 관해서 밝혀 보기로 하겠다. 그 가운데 한가지 유감인것은 저자(著者)가 누구인지 확실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甲峴雜識》은 아마 《菊塢雜識》의 저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런대로 그 이유는 가지고 있다.

2. 체재(體裁)

이 《甲峴雜識》의 체재는 가로 15cm, 세로 23cm이며 한장수사본(漢裝手寫本)으로 전10권 5책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내면은 일면 10행(行)의 인찰지를 사용하고 있다. 매권(每卷) 평균 5매, 100면(面)이고 매면(每面)당 평균 8건(件)의 기사를 수록하고있다. 매건(每件)당 자수(字數)는 평균하여 60자(字) 정도로 기술하고 있어, 이 점이 매우 관심거리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 《甲峴雜識》의 저자는 어떠한 새로운 스타일의 표현방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하였는지도 모르겠다. 비록

외장(外裝)은 완전한 제책(製冊)이지만 실상은 어디까지나 수사본(手寫本)이므로 어떠한 것은 저자 특유의 난필(亂筆)이 있어, 보기 힘든 것들이 많은데 이 《甲峴雜識》의 저자는 모필(毛筆)로 예쁘장하게 잘 써놓았다.

3. 내용(內容)

이미 표제(表題)에서 보는데로 《雜識》이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일례를 들면

清國上海港自働車會社主人薛萬基創作電氣人力車譯車之形狀及大如人力車而前後兩處有坐席又有四輪極爲強力設備精密之電池也

중국 上海에 薛萬基라는 자동차회사의 주인은 전기 인력거를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부터

婦人若罹白帶下之病則各種之細菌自腔內因其溫度濕氣生育繁殖而漸爲蔓延終成子宮內膜炎豈非可懼乎

이러한 부인병에 이르기까지 어느것이고 구애없이 아는대로 적어 나가고있다. 또 하나를 읽어보면

美國大統領던론平日深憎人身之賣買奴隸之制度欲爲打破必起南北戰爭而且殺幾十萬之生靈故以造黑人萬世不忘之思德也

미국 제16대 대통령 린컨의 노예해방에 관한 사실도 적어 놓고 있다. 그러던 이하에서 계속하여 우리 나라 어촌(漁村)에 관한 통계와 그 지명(地名), 그리고 언론(言論)에 관한 내용을 《甲峴雜識》 제1책에서 보기로 하자.

A. 어촌(漁村)

1. 我國通川郡有七漁村一日鶴三面海 里二日順一面七寶里三日踏錢面致弓里四日踏錢面石島里五日順嶺面上下庫底里六日郡內面金蘭里七日臨南面荳白里也
2. 我國杆城郡有九漁村 一日新北面長箭里二日新北面靈津里三日高城面立石里四日高城面烽燧里五日高城面浦外津里六日縣內面豬津里七日縣內面大津里八日梧埜面巨津里九日土城面我也津里也
3. 我國江原道之漁港船之遭難者 及於年年數十隻故漁民恒蒙有形無之脅威面斯業之發展上必爲一大之障礙也
4. 我國江原道江海各郡魚類 三十七種貝類五種藻類六種海獸其也十餘種爲重要水產物也
5. 我國江陵府有五漁村一日新 里面注文里二日連谷面領津里三日資可谷面安仁津里四日郡內面見召津里五日望祥面墨湖津里也
6. 我國江原道海岸各郡之所產 鱒鱒鯉鱒鱒明太魚鯛鮓鮑海鼠和布巖海苔等也
7. 漁業重要之物有十八種 一日大敷網二日大謀網三日八角網四日角網五日擧網六日巾著網七日平網八日流網九日地曳網十日揮羅網十一日栲網十二日延繩網十三日般曳網十四日栝網十五日曳網十六日鈞十七日刺

網十六日裸潛網也

이 어촌에 관한 민간인의 기록으로서는 비교적 상세한 편이라고 하겠다. 일제(日帝)가 이땅에 침략하여 들어온 이후로 그 마수는 어느곳이고 아니 달은메가 없었거니와 우리 나라 해안(海岸)의 여러 빈한한 어촌에 까지 침투한 당시의(적어도 1910년 전후의 시대) 사회적 무드를 파악 하기에 어렵지 않다. 특히 이 어촌 기사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나라 재래(在來)식 어구(漁具)에 대한 것과 그 종류를 적어 놓은 것은 가장 주목할만하다. 이 《甲峴雜識》의 저자는 유독 어업(漁業)에 대한 것을 상세히 기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연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의 여러 어장(漁場)별로 잡히는어군(漁群)들을 일일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1900년대의 어업상황(漁業狀況)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에는 우리 나라 여러기의 신문에 대해서 읽어 보기로 하겠다.

B. 신문(新聞)

1. 每日申報社據于我國之上游多年弓內宿與文化多大故社運逐年隆昌也
2. 新聞以公施之態度穩健之言論輔國策之遂行又努力于思想之善導也
3. 新聞即天下之公器民衆之木鐸社會之警鐘而此世界各國通行之例也
4. 歷史過去之新聞新聞現在之歷史而讀其歷史欲通右讀其新聞欲知令也
5. 以無冠之宰相受世人之畏敬無如新聞記者以文明之利器自公衆爲重視無如新聞紙也
6. 蓋新聞警世之木鐸其一言一句之攸及於世道人心而論其責任則重且大也
7. 高宗太皇帝二十年癸未博文館發行漢城旬報以啓文施以導民智者也
8. 世之人對國家之政治初則有謳歌後則揭攻駁之言論而此文學失言論之眞操也
9. 我國之漢城旬報日本國人井上角五郎之主筆漢城新報日本國人右河松之助之主張獨立新聞美國文學博士徐載弼之經營也
10. 我國之漢城旬報日本國文學博士井上角五郎之創刊而讓博士因時代之變遷欲打破我國閉戶之主義外面以日本國之文明輸入于我國表示爲開化之先驅者中心欲抹人心物態風俗產業爲事業也
11. 世之人前後之主義不同前後之言論各異者甚多而此必無文學之眞操也
12. 高宗太皇帝建陽元年丙申以開化黨之團結成立之獨立協會出現之時發刊獨立新聞即美國文學博士徐載弼之經營而努力于社會之開發甚大此我國人經營新聞之嚆矢也

13. 高宗太皇帝光武二年戊戌獨立協會因皇國協會平涼于勿尾杖之一陣狂風歸於掃地無餘而獨立新聞亦廢止也

14. 勿論何國家何時代絕對之言論自由必以法律禁止而此古令之同然也

15. 高宗太皇帝光武二年戊戌成樂英創刊帝國新聞以我國五百餘年固有之國文編成故閭巷市井婦人童穉皆購讀也

이 《甲峴雜識》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초창기 신문에 관한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처음 들어난 사실은 결코 아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근대신문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내용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甲峴雜識》에 수록된 내용이 의연 중요하게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우리나라 초창기 신문의 여러가지 사정을 오늘날 비교적 상세히 알게 된 것으로 말하면 그간에 연구한 결과로 들어난 것이지,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시대의 사정을 알고 있듯이는 모르고 지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甲峴雜識》에 비친 당시의 신문에 관한 이야기는 적어도 동시대(同時代)적인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당시에 발간되는 신문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자료로서 커다란 소극이라고 하겠다.

이 《甲峴雜識》에 필자가 뽑아 놓은 신문에 관한 기사는 동서 제1책중에서 15개의 사실만을 가려 놓은것인데 이 사실속에서 우리가 당시 신문의 사정을 파악하게 되는 첫째의 문제는 모두가 당초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서 설립된 신문사가 한결같이 경영난(經營難)으로 일본인 손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피도하게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 이탈하는 것은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1900년대는 서구의 경우로 말할 때 언론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지적할 때는 이미 지나간 이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에 비로서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겨우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을 때 였던만큼, 당시 사회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정도를 잘 전해주고 있다. 이 《甲峴雜識》의 저자는 언론은 자유로워야 그 사명을 다할 것이나, 국가의 법을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했다.

—附記—

「도협월보」의 귀중한 지면을 전후 6회에 걸쳐 할애하여 주신 최사무국장님과 김기회부장님을 위시해서 관계하신 여러 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많은 관심 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